

한국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ing Behaviors with Economic Crisis of Korean Households

이 경 옥 · 정 용 선
부산대학교 아동, 소비자, 주거학과

Lee, Kyoung Ok · Jung, Yong Sun
Dept. of Child, Consumer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Abstract

Now in Korea, many households are facing with economic crisis. The study based on the premise that household economic status could keep as stable as before economic crisis depending on the coping behavior of housewives as a manager of househol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coping behavior patterns with economic crisis of housewives, and to examine the socio-demo-economic factors which influence the coping behavior with economic crisis of housewive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principal two patterns of coping with economic crisis were active coping behavior and passive coping behavior. (2) The most frequently used coping behavior pattern was passive coping behavior. (3) The patterns of coping with economic crisis were influenced by the socio-demo-economic factors.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1960년대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우리 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1995년에는 국민소득 1만달러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1995년 12월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보의 부도와 외환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1997년 12월에 IMF(국제

통화기금)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은 소득 만달러의 기쁨을 제대로 누려 보지도 못하고 물거품으로 날려 보내는 아픔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1998년 1월에는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보름만에 가구당 지출액이 최고 9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1997년 11월 이후 가계 부담액은 두 달만에 20만원 이상이 증가(한국경제신문 12월 2일)하여 서민가계에 깊은 주름살이 패개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수신금리가 치솟아 돈이 돈을 놓는 “천민자본주의적 현상”(부산일보 1998년 1월 19일 이광우)이 심화되면서 여유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사회적 위화감 까지 조성하여 사회적 부작용과 함께 개별 가계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만만치 않다.

가계는 이러한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생태체계 중의 하나이다(Voydanoff, 1990). 외부 경제의 위기 상황은 그대로 가계의 위협적인 스트레스 요소가 되며 가계는 이러한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어떤 대처를 하게되고 이 결과로 비롯된 변화에 다시 적용하거나 조절해 나감으로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자기규제기능을 가진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Deacon & Firebaugh, 1981). 즉 가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어느정도 갖춘 체계이기 때문에 외부의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그 변화가 가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스트레스 요소가 된다고 할 때 가계는 자기조절 기능을 갖춘 유기체로서 이러한 자극에 대처하는 어떤 전략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IMF 경제체제라는 현 경제상황은 가계에 엄청난 위기로 작용할 것이며 가계는 이러한 외부 자극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대처 행동을 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점에서 가계들이 경제적 불안을 대처해 나가는 행동패턴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떤 대처행동을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시기라고 본다.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Frederick, Ronald, Whitbeck, Elder, 1991, 정서린 장윤옥 1996)를 살펴 보면 주부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가계의 경제문제이며 가족간의 갈등(부부갈등, 고부갈등)을 다룬 연구에서도(Mari, Donna, Joel, 1987, 김명자, 1991) 갈등의 주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인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생활사건에 대한 연구(David, Alan. Acock, 1988, 최자영, 임정빈, 1996)를 고찰해 보아도 생활의 기본 자원인 금전과 관련된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는 대처행동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 전략을 취함으로서 경제적 위기감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Patricia, Alyce, Tahira, 1989)는 연구 결과를 내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외 연구에서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에 관한 자료가 매우 희박하고 그 중요성도 사실상 인식되어 오지 못하였으며 척도 또한 범용하여 사용될 만큼 신뢰성과 타당성이 널리 입증된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을 혁명하게 대처해 나갈려면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개별가계의 복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비자 교육 지도자와 정부의 복지정책 입안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에 대한 가계의 대처행동을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척도를 재정리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이용해 가계를 경영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가계들은 어떤 대처행동을 많이 이용하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대처행동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아 좁개는 개별가계의 경제적 불안감을 감소시켜주고 넓개는 소비자 교육자와 정부에게 가계의 복지지원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가계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행동을 사용하는가?
- 2) 가계의 대처행동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대처행동의 개념

인간의 행동은 개인변인과 상황변인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같은 상황변인이 주어져도 각 개인의 행동양식은 다를 수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어떤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대처행동이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대처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으로서 외부 환경과의 올바른 조화와 균형을 위해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고 운용해 나가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을 의미한다(Blanchard-Fields and Robinson, 1987). 또한 Krause(1986)는 대처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 다소 위협적이고 부담이 되는 가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의 과정으로서 문제인지 과정이고 문제해결과정인 인지적 활동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Burr, Randal, Kathleen(1995)는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 중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대응전략을 확립하는 것이며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경험하는 과정, 행동 또는 행동유형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명자(1991)는 대처행동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행위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제거, 수정하거나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의 의미를 재평가하여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하거나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직접적 대처보다는 이로인한 불안감을 극소화하기 위한 시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 정의를 종합하여 정의해 보면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갈등이나 긴장, 부담을 극복하거나 감소시키려고 인지적, 행동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을 대처행동이라고 하며 가계의 경제적 불안이라는 자극 요소에 대응하여 가계가 새로운 가계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전략적 행동과정을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2. 경제위기 대처행동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는 원래 스트레스에 관한 대처로서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였으나 각 관련 학문 분야별로 스트레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다음 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유형을 분류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경제위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대처행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한다.

Buehler와 Hogan(1986)은 자원중심적 유형, 목표중심적 유형, 제약적 유형으로 나누었다(홍은실, 황덕순, 1996에서 재인용). 자원중심적 유형은 요구구조에 맞추기 위해 자원을 창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자원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전략이고, 목표중심적 유형은 자원중심적 유형과 상반되게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원구조의 한계에 따르기 위해 요구를 미루거나 제거하거나 표준을 낮춤으로써 요구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촛점을 두는 행동전략이며, 제약적 유형은 가족의 자원이 제한되거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구구조나 자원구조 어느 것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Voydanoff(1990)는 경제적 곤란에 대한 대처행동으로서 재정관리(Financial Management), 비공식적 경제활동(Informal Economy), 자기노동력 활용(Do-It-Yourself), 가족노동력 활용(Family Work Effort), 재정규모확장(Financial Overextension)의 5가지를 들고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 보면 재정관리에는 매일매일의 지출기록과 계획적인 지출, 가계운영의 목표설정 등을 포함하며 비공식적 경제활동에는 중고품시장에서의 구매, 교환, 판매 행위, 공장장이나 경매시장을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되고 자기 노동력 활용에는 의복의 직접 제작과 수리, 완성품이 아닌 조립제품의 구입, 가족 노동력 활용에는 가장 이외 가족원의 취업 및 부업, 근로시간의 연장, 재정규모 확장에는 보험이나 저축의 이용, 소비자 신용이나 대출과 같은 행동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손상희(1995)는 경제위기 대처행동으로 절약

〈표 1〉 학자별 경제위기 대처행동의 하위영역

저자(연도)	Buehler & Hogan (86)	Voydanoff (90)	손상희 (95)	황덕순 (95)	최자영 (96)
하위영역	자원중심적 유형 목표중심적 유형 제약적 유형	재정관리 비형식적 경제 자기노동력활용 재정적 확장 가족노동력활용	절약 및 노동력의 활용 재정관리 의존적 행동 한계적 행동 소극적 노력 적극적 노력	피동적 적응 의도적 관리 규범적 절약	지불연기 절약구매 차용행동 자신이용

및 노동력의 활용, 재정관리, 의존적 행동, 한계적 행동, 소극적 노력, 적극적 노력의 여섯 가지를 들었다. 소극적 노력은 소비를 신중히 하는 행동들, 적극적 노력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 절약 및 노동력 활용은 자급자족과 물품절약, 재정관리에는 소득을 올리고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것, 의존적 행동에는 부모, 친지, 친구로 부터의 도움, 한계적 행동에는 가족원의 취업, 재산의 처분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덕순(1995)은 가계가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대처행동에는 경제적 불안이 발생한 후에 이를 처리하는 피동적 적응과 사전에 경제적 불안을 미리 예방하는 의도적 관리, 근검, 절약과 같은 사회에서 강조되는 생활규범들을 이용하는 규범적 절약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최자영(1996)은 지불연기, 절약구매, 차용행동, 자산이용의 4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지불연기는 이자나 빚, 카드대금의 연체, 절약구매는 공동구매와 중고품 구매등 지출을 줄이는 행동, 차용행동은 금융기관이나 친구 친척으로부터의

차용, 자산이용은 적금의 해약이나 재산처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거나 자원의 규모를 늘리는 등 가계의 자원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행동전략을 적극적 대처라 명명하고 이와 반대로 개별 가계가 기준에 갖고 있는 자원구조의 한계 내에서 가족원들의 욕구 수준을 낮추거나 억제하므로써 욕구 수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행동전략을 소극적 대처라 명명하여 두 영역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Buehler & Hogan의 제약적 유형과 손상희의 절약 및 노동력 활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사실상 어떠한 대처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것에도 포함시킬 수 없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절약을 통한 지출감소는 소극적 대처에 가족의 노동력을 통한 생산력 확대는 적극적 대처에 포함되어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표 2〉 적극적 대처행동과 소극적 대처행동의 하위영역

적극적 대처전략	Buehler & Hogan의 자원중심적 유형 Voydanoff 의 재정관리, 자기노동력활용, 가족노동력활용 손상희의 적극적 노력, 재정관리 황덕순의 의도적 관리
소극적 대처전략	Buehler & Hogan의 목표중심적 유형 Voydanoff 의 비형식적 경제활동, 재정적 확장 손상희의 소극적 노력, 의존적 행동, 한계적 행동 황덕순의 피동적 적응, 규범적 절약 최자영의 지불연기, 절약구매, 차용행동, 자산이용

〈표 3〉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 결과

경 제 위 기 대 처 전 략 유 형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임시방편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여 우선 필요한 곳에 쓴다	0.6340	0.1109	0.1213	0.1069	0.2090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일단 카드를 사용한다	0.6001	0.0154	0.1256	0.1444	0.1409
	모자라는 돈은 은행이나 친구 친지에게서 빌려 쓴다	0.6481	0.1458	0.0566	0.0209	0.1766
욕구억제	가계지출을 가능한한 줄인다	0.0770	0.6110	0.1045	0.0150	0.1303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0.1900	0.8921	0.1330	0.1040	0.1608
	웬만큼 필요한 것은 빌려 쓰거나 안 쓰고 견딘다	0.1058	0.6791	0.1019	0.1503	0.1021
	최소한의 지출 비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한다	0.1048	0.6780	0.1080	0.1700	0.0154
정보추구	신문을 매일 매일 읽고 경제동향을 파악한다	0.1260	0.1007	0.6188	0.0488	0.1303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경제서적을 사서 읽는다	0.1618	0.1762	0.7375	0.0190	0.0531
	가계재무관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0.1843	0.1305	0.7238	0.1724	0.0609
소득확장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익힌다	0.0176	0.0285	0.0996	0.6787	0.0461
	가장 이외의 다른 가족원들도 일자리를 구한다	0.1050	0.1490	0.1324	0.5394	0.1054
	막노동을 해서라도 소득을 늘린다	0.1130	0.1247	0.1305	0.6029	0.1047
무기력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0.1207	0.0241	0.1525	0.1661	0.5166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	0.1291	0.0487	0.0125	0.1055	0.5484
	가계를 더 이상 꾸려 나가기가 힘들다	0.0741	0.0703	0.0901	0.1516	0.5149
무관심	가계관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0.1011	0.0943	0.1094	0.0744	0.0155
	IMF이전의 생활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0.0968	0.1206	0.0912	0.0531	0.1207
eigen 값		3.2454	2.6648	2.5301	2.1122	1.7709
설명력		0.2131	0.1740	0.1092	0.1019	0.1001

결론적으로 경제위기 스트레스는 여러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크게 소극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대처로 2구분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여기에 Buehler & Hogan의 제약적 유형과 같이 경제위기 스트레스에 어떠한 대처행동도 하지 않는 무기력형과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가계관리에 관심자체가 없는 무관심형이라는 두 유형을 추가하여 고려해 보는 것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는 연구방법일 것 같다.

III. 연구방법

1. 척도의 구성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 대처행동에 관한 기존의 척도들을 크게 소극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로 나눌 수 있으며 적극적

대처에는 정보추구와 소득확장을, 소극적 대처에는 임시방편과 욕구억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여기에 대처행동을 하지 않는 일탈된 형태로서 무기력과 무관심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극적인 대처행동의 내용으로는 부족분을 차용을 통하여 임시변통하는 행동과 욕구를 억제하여 가계의 지출을 최소한도로 줄이려는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며 적극적인 대처행동으로는 부업이나 근무시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늘리려는 전략과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많은 경제 서적과 정보들을 탐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각각의 대처행동에 관해서 다항목 측정으로 척도를 작성하여 5점 리커트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2. 척도의 타당성 검증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자분석

〈표 4〉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범 주	N	%		범 주	N	%
주 부 연 령	20대	3	1.3	주 부 학 력	국 졸	10	4.4
	30대	30	13.3		중 졸	12	5.3
	40대	94	41.8		고 졸	132	58.7
	50대	86	38.2		대 졸	69	30.7
	60대이상	12	5.3		대학원졸	2	0.9
가 계 소 득	100만원미만	50	22.2	주 부 직 업	무 직	46	20.4
	200만원미만	108	48.0		임시고용직	65	28.9
	300만원미만	55	24.4		소규모자영업	60	26.7
	400만원미만	6	2.7		일반사무직	47	20.9
	400만원이상	6	2.7		고위전문직	7	3.1

을 실시하였다. 분해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회전방식으로는 Varimax를 이용하였다.

인자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잘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KMO값을 구해본 결과 대체로 0.6 이상이면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당한 것으로 보고 0.5이하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0.6719가 나왔으므로 변수들의 선정이 적당하며 샘플링도 양호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문항이 추출된 요인에 의해 어느정도 설명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 주는 Communalilty 값을 살펴 보면 대체로 값이 0.4 이하이면 낮다고 판정하는데 본 척도에서는 0.4이하의 값을 갖는 문항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 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인자분석을 해 본 결과 6요인으로 묶을 수 있었는데 각 문항별 요인 부하량의 결과치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결론적으로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척도는 인자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KMO값을 볼 때 변수 선정과 샘플링이 적당하고

척도에 이용된 각 문항은 COMMUNALITY값을 볼 때 모두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3. 척도의 신뢰성 검증

인자분석을 실시한 이후 이들 요인들이 동질적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측정에 있어 측정오차가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파악하여 신뢰도를 정의하기 위해 Cronbach Alpha를 구하였다. 인자분석 결과에서는 6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나 요인별로 신뢰성 분석을 해 본 결과 0.5를 기준으로 해석해 볼 때 6개 요인중 요인 6의 경우가 0.4314로 신뢰성 계수가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택하기로 한다.

4. 표본추출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들

〈표 5〉 가계의 경제위기대처행동별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임시방편	욕구억제	정보추구	소득확장	무기력	무관심
표준편차	4.28	4.01	3.17	2.99	2.37	3.12
최대값	0.95	1.01	1.24	1.28	1.15	1.36
최소값	4.88	4.69	3.88	3.31	2.87	3.53
	3.90	3.89	2.79	2.19	1.57	2.78

〈표 6〉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경제위기 대처행동

	임시방편	욕구억제	정보추구	소득확장	무기력	무관심
	TSS=102.07 F=10.88*** P=.0001 R ² =0.46	TSS=26.58 F=1.75* P=.04 R ² =0.12	TSS=31.65 F=2.14** P=.008 R ² =0.14	TSS=60.06 F=4.76*** P=.0001 R ² =0.27	TSS=20.30 F=1.30 P=.20 R ² =0.1	TSS=25.50 F=1.67 * P=.05 R ² =0.11
주부의 연령	TSS=43.55 F=18.57*** P=.0001	TSS=8.06 F=2.12 P=.07	TSS=4.44 F=1.20 P=.31	TSS=30.65 F=9.81*** P=.0001	TSS=4.23 F=1.08 P=.36	TSS=7.95 F=2.08* P=.05
가계의 소득	TSS=42.84 F=18.27*** P=.0001	TSS=1.42 F=0.37* P=.02	TSS=10.95 F=2.96* P=.02	TSS=12.11 F=3.84 ** P=.0049	TSS=6.26 F=1.60 P=.17	TSS=6.21 F=1.63 P=.16
주부의 학력	TSS=9.99 F=4.26** P=.0025	TSS=14.04 F=3.70** P=.006	TSS=15.27 F=4.13** P=.003	TSS=4.41 F=1.40 P=.23	TSS=6.84 F=1.75 P=.14	TSS=4.26 F=1.12 P=.34
주부의 직업	TSS=5.70 F=2.43* P=.04	TSS=3.07 F=0.82 P=.5	TSS=0.97 F=0.26 P=.8	TSS=12.59 F=4.00** P=.0038	TSS=2.97 F=0.76 P=.5	TSS=7.52 F=1.97 P=.1

* p<0.05

** P < 0.01

*** P < 0.001

	임시방편	욕구억제	정보추구	소득확장	무기력	무관심		
주연부의령	20대	-2.20	D	-0.65 A	0.05 AB	-2.58 B	-0.97 A	0.35 A
	30대	-1.20	C	0.03 A	0.53 A	0.15 A	0.20 A	-0.58 C
	40대	-0.02	B	0.24 A	0.11 AB	0.08 B	0.10 A	-0.08 C
	50대	0.01	B	0.13 A	-0.08 AB	0.03 B	0.03 A	-0.10 C
	60대이상	0.33	A	-0.20 A	-0.02 AB	0.04 B	-0.06 A	0.19 B
가소계의득	100만원미만	-2.07	B	0.42 A	0.08 A	-1.70 C	0.60 A	0.00 A
	200만원미만	-2.08	B	0.17 B	-1.82 B	1.14 A	-0.37 AB	-0.15 A
	300만원미만	-0.97	A	0.07 B	-0.24 A	-0.47 B	-0.50 AB	-0.14 A
	400만원미만	-0.12	A	0.11 B	-0.11 A	0.00 B	0.13 AB	0.17 A
	400만원이상	-1.34	B	-0.04 C	0.10 A	0.15 B	0.00 AB	0.00 A
주학부의력	국졸	-2.28	C	0.21 AB	-0.83 B	0.24 A	0.13 A	0.26 A
	중졸	-0.46	B	-0.33 AB	-0.56 B	-0.53 AB	-0.57 A	0.45 A
	고졸	-0.19	B	0.36 A	-0.12 B	-0.22 AB	-0.17 A	-0.24 A
	대졸	0.19	A	0.03 AB	-0.08 B	0.08 AB	0.00 A	0.02 A
	대학원졸	0.11	B	-0.44 AB	0.49 A	0.09 AB	0.24 A	0.14 A
주직부의업	무직	0.08	A	0.13 A	0.07 A	-1.43 B	0.23 A	0.01 A
	임시고용직	0.09	A	0.00 A	-0.02 A	0.00 A	0.00 A	0.05 A
	소규모자영업	-0.19	A	0.01 A	-0.17 A	0.20 A	0.14 A	0.24 A
	일반사무직	0.05	A	-0.30 A	0.17 A	0.04 A	-0.05 A	-0.24 A
	고위전문직	-0.04	A	0.00 A	0.15 A	0.03 A	0.00 A	0.03 A

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단순임의 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방법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연령이 많은 경우는 타계식 직접면접조사법을 이용하였으나 비용, 시간, 노

력이 많이 드는 관계로 그 이외의 경우는 자계식 배포조사법을 사용하였으며 거리가 너무 면 경우나 만나기 힘든 경우는 우편조사법을 이용하였으나 회수율은 매우 낮았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300부였으나 회수율 80%로 총 242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부실응답설문지는 제외시키고 총 225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기간은 1998년 4월 20일부터 5월 12일 까지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다음 표 4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주부의 연령은 30대에서 50대까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41%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부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 58.7%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대졸로서 30.7%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거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이 5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주부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에 직장을 얻은 경우가 많아 IMF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직은 거의 없고 임시고용직이나 일용직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는 소규모 자영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IV. 결과의 분석 및 해석

1.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양식

각 요인으로 묶인 문항별로 평균값과 표준 편차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자금을 차용하거나 카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보다는 그때 그때의 상황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문제해결방식이다. 그러므로 이 요인을 임시방편적 대처라고 명명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전략 중에 평균이 제일 높게 나와 우리나라 주부들이 가계의 경제문제를 풀어 나

가는 전략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일단 돈이 들어오면 저축부터하고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보다는 미래의 가계안정을 위해 투자하는 형이다. 그러므로 이 요인을 욕구억제적 대처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신문이나 서적을 읽고 경제 동향을 파악하거나 경제지식을 늘리는 것으로 경제위기를 경제상식과 정보를 통해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것으로 이를 정보추구적 대처라고 명명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거나 부업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이 요인을 소득확장적 대처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욕구억제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문제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욕구억제에 비하여 평균이 현저히 낮음을 볼 때 우리나라 주부들은 주어진 현재의 여건하에서 가계를 꾸려 나가보려는 의지가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업을 가지는 주부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 임시직이 많으므로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적고 이것이 생활의 만족감을 떨어 뜨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섯 번째 유형은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의욕도 상실해 버린 유형으로서 자포자기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요인을 무기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여섯 번째 유형은 국가경제가 어려워도 자신의 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IMF 이전이나 이후나 가계관리에 별다른 전략을 쓰지 않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이 요인을 무관심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경제위기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 이전의 생활대로만 성실하게 살아가면 곧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적인 사고의 소

지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남이야 고통 받건 말건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적인 사고의 소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경제위기 대처행동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경제위기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GLM분석을 한 결과와 각 하위영역별 차이를 평균과의 차이점수로 사후검정(Duncan Groups)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우선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이가 나는 경제위기 대처행동에는 6개의 대처행동중 무기력형 하나만 제외하고 5개의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시방편의 경우에는 유의수준이 0.0001 수준에서 가계의 특성인 주부의 연령, 가계의 소득,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방편적인 경제위기 대처방안은 주부의 연령이 60대 이상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며, 다음은 4·5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나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임시방편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계소득을 보면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와 4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임시방편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자가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임시방편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저소득층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은행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능한 결과이다.

주부의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국졸이 가장 적게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학력들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또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부의 직업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욕구억제적 대처가 가계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P<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주부의 연령과 직업별로는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없으며 주부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의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의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극빈가계가 현 상태에서 더욱 지출을 줄이는 인고의 가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욕구 억제를 통한 지출감소가 조금 줄어드는 편이다.

정보추구적 대처는 $P<0.01$ 의 수준에서 가계 특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각 가계특성별로 살펴보면 주부의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부의 연령에서는 30대가 가장 많이 정보추구적인 전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계소득에서는 100만원대의 소득을 가진 가계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정보를 적게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졸 이상의 최고학력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학력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경제상식이나 경제정보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이한 내용이 아니며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색해 일반 주부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확장적 대처를 살펴보면 $P<0.001$ 의 수준에서 가계특성별로 차이가 난다고 말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은 30대의 경우가 소득확장을 위한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30대가 부업을 가져도 될만큼 노동력도 있으며 가계의 소득도 4·50대에 비해 적고 가계지출도 많을 시기이며 가장 활동적인 연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계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소득확장전략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100만원 미만의 가계에서 소득확장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으며 그 이외의 소득층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어느정도의 생계유지는 되면서 소득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며 100만원 미만의 가계소득으로는 생계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욕을 상실해 버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대체로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확장을 위한 어떤 시도도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주부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국졸의 경우가 소득확장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 이외의 학력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주부들이 취업하거나 부업을 하는 경우 대체로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가 많으므로 고학력의 경우에는 주부 본인의 자존심에 의해서 전 타의에 의해서 전 적절치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학력 주부들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부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의 경우에 소득확장에 가장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직업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직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온 이유는 소득확장을 위해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거나 소득확장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거나 혹은 전업주부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기력의 경우는 가계특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없으나 던컨검정을 통해 살펴보면 가계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외의 가계소득층간에 약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확장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소득층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관심의 경우는 $P<0.05$ 의 수준에서 가계특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각 가계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계소득,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부의 연령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주부의 연령층 중에서 20대가 가장 무관심하였으며 다음이 60대이고 3·4·50대가 가장 적은 무관심도를 보였다. 양극단의 연령층에서 무관심이 높은 이유는 20대인 경우 가계관리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60대인 경우 일종의 노화현상으로 경제상황의 변화와 위기에 대한 감지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본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주부들이 가계의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략에는 임시방편적, 욕구억제적, 정보추구적, 소득확장적 대처와 무기력, 무관심의 6가지 대처행동을 들 수 있다.

둘째, 6가지 유형 중에서 사실상 가계경제의 위기에 어떠한 대처를 한다고 보기 힘든 무기력과 무관심을 보면 무기력은 가장 적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무관심은 소득확장적 대처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어 조금 안타깝다.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대처행동을 한다고 보이는 4가지 대처행동을 두고 볼 때 우리나라 주부들은 임시방편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이용하고 다음이 욕구억제, 정보추구, 소득확장적 대처 순이다. 4가지 대처행동을 크게 소극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대처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때, 임시방편과 욕구억제는 소극적인 대처에 포함되고 정보추구와 소득확장은 적극적인 대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주부들은 소극적인 대처를 적극적인 대처보다 훨씬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 형태는 무기력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전략행동에서 가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임시방편은 연령 40대 이상, 가계소득 200만 원이상에서 400만원 미만 정도이고 학력은 대

출인 주부가 가장 많이 이용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깍이거나 가장이 실직한 가계에 서는 봇고 있는 예금과 보험을 중도 해약하는 임시방편적인 길을 택하는 가계가 많으나 지금 당장은 가계부담이 줄어드는 듯 하나 미래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이들 가계를 위해 매월 봇는 저축이나 보험료를 줄여주는 편의장치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욕구억제는 거의 대부분의 가계에서 많이 쓰는 전략으로 가계 특성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욕구억제를 통한 가계소비 감소전략을 많이 쓰며 주부의 학력에 있어 고졸인 주부가 유의미하게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억제를 통한 초절약적인 가계관리의 행태는 저축율의 비정상적인 상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득이 평균 2.8% 줄어든 지난 1/4분기 중 도시근로자계의 저축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실제 지난 1/4분기 중 가구당 월평균 저축액은 64만 8천원으로 작년 동기 59만 2천원은 물론 1997년 연평균 61만1천원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 검소한 소비는 바람직하나 이상적인 소비감소세는 실물경제를 파탄으로 이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동안 가계소비는 GDP성장에 무려 52.6%를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가계 소비 지출 감소세가 경제성장을의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반전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소비부진 → 기업생산활동 위축 → 가계소득감소 → 가계소비부진심화로 이어져 경제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98년 7월 24일 경제신문, 하영춘 기자 hayoung@). 가계의 경제위기를 소극적으로 무조건적인 소비지출 억제로서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보추구는 연령은 30대에서, 교육수준은 대학원 교육까지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처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들이 경제정보를 찾고 수집하는데

열성적이며 이의 중요성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급박하게 경제상황이 바뀌어 가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경제흐름의 파악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효율적인 가계관리를 하기 어려우므로 정보추구의 대처행동을 많이 이용하도록 주부들을 교육 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소득확장은 연령에서는 30대, 가계소득은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 학력은 국졸인 경우에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의 주부들이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고인력의 주부들이 좀더 좋은 여건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환경의 뒷받침이 선결되어야 될 문제이나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무기력의 경우는 가계특성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가계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극빈 가계에서 조금 높게 나왔다. 얼마전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서 서울시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명중 1명꼴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신문기사를 통해 보았다. 자살충동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능력감이 가장 많았다. 삶의 목표와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므로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하루 빨리 나와야 될 것으로 본다.

무관심의 경우는 주부의 연령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20대와 60대가 가장 관심이 적고 3·4·50대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20대인 경우 가계관리 능력과 경험의 부족, 60대인 경우 경제상황의 변화와 위기에 대한 감지능력의 퇴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의식교육이 사회교육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

- 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상희(1995). 부채 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 정서린, 장윤옥(1996). 가정자원 적정도 지각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주부의 가정자원 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353-365.
- 최자영, 임정빈(1996). 도시 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행동 및 경제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 홍은실, 황덕순(1996). 도시 주부의 가치유형과 계획행동 유형 및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203-217.
-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1995). 도시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 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Daniel T. & David J. (1994). The effect of parental employment on child pover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33-645.
- David A. (1984). Social stressors as antecedents of change. *Journal of Gerontology*, 39(4), 468-477.
- David H. Acock C. (1988).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19-648.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massachusetts : Allyn and Bacon Inc.
- Elizarbeth P. Helmick A. (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Blanchard-Fields & Susan L. (1987). Age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controllability and coping. *Journal of Gerontology*, 42(5), 497-501.
- Lorenz O., Ronald L., Whitbeck B., & Elder H. (1991). Economic pressure and marital quality : an illustration of the method variance problem in the causal modeling of family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375-388.
- Duncan & Rodgers (1988). Longitudinal aspects of childhood pover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007-1021.
- Irion & Blanchard-Fields (1987). A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adaptive coping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42(5), 502-504.
- Lown M. (1986). Family financial well-being: guidance from research. *Journal of Home Economics*, 4, 5-8.
- Wilhelm, Iams, Rudd (1987). Husband and wife agreement on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1), 13-22.
- Galambos & Silbereisen (1987). Income change, parental life outlook, and adolescent expectations for job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41-149.
- Neal Krause (1986). Stress and Coping :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locus of control beliefs. *Journal of Gerontology*,

- 41(5), 617-622.
- Olson N. & Olson I. (1986). Economic well-being of elderly families and individuals: an alternative meas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1), 32-42.
- Patricia M., Alyce M. Hira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Patricia Voydanoff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1115.
- Pearlin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Rand D., Elder, Lorenz, Conger, Huck and Melby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Sara & Booth (1989). Mother 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Rowland, Dodder, Nickols (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218-225.